

광주에 반도체 설계 팹리스 기업 잇단 '등지'

NEWS

2025년 4월 16일 수요일

에이직랜드, 남구 실감콘텐츠큐브에 입주·현판식 반도체 생태계 구축 역할 기대...에임퓨처, 내달 개소

광주시 유치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들이 잇따라 광주사무소의 문을 연다. 이는 단순한 업무협약(MOU)을 넘어 광주에 연구개발(R&D) 인력 채용 등 정착해 지역 반도체 생태계 구축의 핵심 역할을 하며 함께 성장하겠다는 다짐이자 출발이다.

광주시는 팹리스 1호 유치기업인 ㈜에이직랜드가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에 광주사무소를 마련, 15일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강기정 시장, 이종민 에이직랜드 대표이사를 비롯해 이경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오상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 강현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호남권연구본부장, 팹리스 유치기업인 ㈜에임퓨처·㈜모빌린트·수퍼게이트㈜ 대표, 지역 대학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에이직랜드는 세계 최대 규모의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사의 글로벌 8개 협력사 중 국내 유일 기업으로, 독자적인 반도체 설계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설계-양산-패키징-검수 등 반도체 전 공정을 조정하는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기업으로, 광주 유치 팹리스 기업들과 협력해 광주지역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핵심적 역할을 할 전망이다.

에이직랜드는 광주 남구 GCC에 반도체

연구개발(R&D) 센터를 구축, 반도체 설계 후공정 분야 기술개발을 할 계획이다.

또 지역대학과 협력해 지역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키우고, R&D인력 등 고급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민 에이직랜드 대표이사는 "광주의 AI 인재와 인프라를 보고 광주를 택했다. 에이직랜드의 새로운 시작이 될 광주사무소에 빠른 인력 채용 등을 통해 연구개발(R&D) 중심으로 성장시키겠다"며 "많은 AI기업들이 광주를 택하고 있고, 에이직랜드 광주사무소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술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광주와 끈끈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의 AI실증 사업 등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에이직랜드의 광주사무소 개소를 축하한다. 팹리스 기업의 잇따른 광주행은 광주가 대한민국 AI 성장판을 여는 데 큰 힘이다"며 "광주는 '광주 AI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인프라, 인재, 기업으로 이어지는 생태계 구축 성과로 답하고 있다. 광주를 믿고 온 기업들의 손을 맞잡고 광주가 할 수 있음을, 광주가 대한민국 AI의 미래를 확실히 증명해 내겠다"고 밝혔다.

에이직랜드에 이어 광주 팹리스 2호 기업인 ㈜에임퓨처도 다음달 GCC에 광주사



강기정 광주시장이 15일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에서 열린 ㈜에이직랜드 광주사무소 개소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무소를 개소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고성능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팹리스)을 잇따라 유치하면서 팹리스 1호 기업 ㈜에이직랜드를 시작으로, ㈜에임퓨처, ㈜모아이, ㈜모빌린트, 수퍼게이트에 이어 최근 메타 인수제인을 거절한 퓨리오사(에이아이)까지 팹리스 기업 6개사를 유치하면서 '인공지능 대표 도시 광주'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광주시는 팹리스 기업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딥테크 스케일업밸리 육성사업'을 통해 공동연구 및 협력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에 선정된 국책사업으로, 지역 수요기업 제품에 팹리스 기업의 AI 반도체를 접목해 기술개발과 제품 혁신을 도모한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전남바이오진흥원, K-바이오헬스 선도한다

주관기관 선정...지역바이오헬스 분야 창업기업 성장 지원

전남바이오진흥원이 K-바이오헬스 지원사업 주관기관에 신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5일 지역 거점형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한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 주관기관 6곳을 신규 선정했다. 선정된 6곳은 전남바이오진흥원을 비롯해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대전테크노파크,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이다.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은 전국의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를 지역 거점형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부터 시행돼 3년간 57개 바이오헬스 창업기업이 클러스터의 시설과 장비를 활용하고, 병원과

연계에 임상시험 등을 수행했다.

올해 사업에서는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운영기관을 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 삼아 지역 거점형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지역 간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신규 선정된 6곳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거점형 클러스터로 기능하는 한편 지역 내 바이오헬스 창업기업의 육성·지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 지역의 병원이 지원사업에 참여해 창업기업에 의료 빅데이터, 시험·분석 등을 제공함으로써 사업화를 지원한다.

이현규 기자 gnnews1@

전남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유치 '온힘'

해남·영암·나주·여수 등 4곳...첨단에너지 기업 유치 기대

전남도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사업계획서 및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계획서는 전남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총괄계획과 해남, 영암, 나주, 여수, 4개 지역의 조정계획으로 구성됐다.

AI 가속화, 데이터센터 확산 등으로 전 세계가 사용하는 전력수요가 2022년 대비 2051년 2.5배가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력망에 적기에 확충하는 것이 첨단산업 경쟁력, 탄소중립, 에너지 안보의 핵심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국가 전력망 신규 확충 부담을 최소화하고 전력 소비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공급하기 위해 국가가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시범지역이다.

특화지역에 지정되면 한전 이외에도

분산에너지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직거래가 가능하고, 에너지 생산, 저장, 소비, 거래 분야 다양한 신사업에 대한 규제특례가 가능해진다.

또한 정부에서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활성화를 위한 땅 이용요금, 기후환경비용 등 각종 전기요금 부담비용 등에 관한 인센티브도 마련하고 있어 분산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에너지 다소비 기업 이전이 촉진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데이터센터 등 첨단 전력 소비 기업 유치, 분산에너지와 AI·ICT 기술 융합을 통한 에너지 신사업 선도를 전남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2대 목표로 정하고 3년 내 성과 창출이 가능하면서 가격 경쟁력 있는 우수 입지 4개 지역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해남은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기반 지역 분산형 전

력을 구축하고,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조성을 위한 구체적 지원 계획을 제시했다. 영암은 삼호읍을 중심으로 AI 기반 실시간 자율적 수요반응 시스템을 도입해 최적화된 에너지 사용, 저장, 공급을 통해 이익을 공유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나주는 독립적인 전력 시스템(마이크로그리드)을 단계별로 구축하고 나주혁신산단 등 입주기업에 재생(태양광), 저장 전기(ESS)를 직접 공급하며 독립된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신기술을 적용한다.

여수는 모도를 중심으로 전력계통에 여유가 없을 때 출력제한 등을 조건으로 추가로 계통에 접속하는 유연 접속을 시도한다.

4개 지역 모두 다양한 분산(재생)에너지 발전소를 ICT 기술로 통합해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통합발전시스템(VPP)을 공동으로 운영한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도, 청년 주도 사회서비스 추진 목포과학대 등 프로그램 운영

전남도는 지역 청년이 주도해 청년 이용자(18~45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2025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청년이 주체가 돼 지역에 사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건강증진을 동시에 꾀하는 새로운 지역사회서비스 모델이다.

올해 보건복지부 공모로 목포과학대가 신규 청년사업단으로 선정됐으며, 지난해에 이어 계속 사업을 수행하는 세한대와 함께 '신체건강증진 서비스'와 '바른자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비스 이용을 바라는 전남 거주 18~45세 청년은 시군 복지 담당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대상 질환·소득기준 완화...신청 절차 간소화

광주시가 올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재산 기준 등을 충족하는 희귀질환자의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광주시는 올해 사업비 10억여원을 투입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

대상질환을 늘리고, 환자 가구의 소득 기준을 완화해 희귀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준다.

울이완불능증 등 대상 질환이 기존 1272개에서 1338개로 66개 확대됐다. 소득 기준도 완화돼 기존에는 성인은 중위 소득 120% 미만, 소아는 130% 미만이었

으나, 올해부터는 연령에 관계 없이 중위 소득 140% 미만 대상자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졌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됐다. 진단서 인정 범위가 확대돼 주상병 또는 부상병 여부와 관계없이 최종 진단명이 대상 질환에 포함되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청구 방법도 개선해 기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접수 외에도 우편과 팩스 제출이 가능하도록 신청자 편의를 높였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등록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을 통해 하면 된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